

◆머느리권씨 열전 26

쌍벽당, 종부 권현일 (광산 김씨, 종손 김선술의 妻)복야공파 33세, 두광계 권진사댁 종손 권철연의 여女, 독립지사 권상경의 매妹

광산김씨-근현대

35세

34세

33세

사위 오진국 興國國 金進國 이다

사위 오진국 興國國 金進國 이다

사위 오진국 興國國 金進國 이다

광산김씨-근현대

35세

34세

33세

사위 오진국 興國國 金進國 이다

사위 오진국 興國國 金進國 이다

사위 오진국 興國國 金進國 이다

광산김씨-근현대

35세

34세

33세

사위 오진국 興國國 金進國 이다

사위 오진국 興國國 金進國 이다

사위 오진국 興國國 金進國 이다

일제강점기에는 김마리아, 김필순, 김갑수 등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했으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광산 김씨 출신이다. 김우중의 아버지 김용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스승이기도 했다.

광산 김씨는 문정공파, 문숙공파, 양간공파, 낭장공파, 사온작장공파 등 5대 분파로 나뉘며, 그 외에도 여러 종파와 지파가 존재한다. 이들은 고려시대 여요 전쟁과 훈인 관계를 통해 인천 이씨, 청주 이씨 등 유력 가문과도 연결되어 있다.

담암공파 임향조는 김용석(潭庵,23世)이며, 자는 연숙(鍊叔)이다. 1453년 한성에서 태어났으며, 조선 성종 때 진사과에 급제하였다(1472년). 집필제 김종직의 문하에서 학문을 수학하였고, 장안 심철 중 수좌로서 명성을 떨쳤다.

성종 연간의 정치 혼란을 예견하고, 안동 풍천면 구담으로 낙남하였다. 이후 자손들에게 대과 응시를 금지하는 유훈을 남겼으며, 청명하고 간직한 성품으로 후대에 많은 존경을 받았다. 공은 자신의 아호인 '담암'을 파명으로 삼았고, 이후 후손들이 담암공파로 분파하였다.

거주지는 경북 안동시 풍천면 구담이며, 대표 유적으로는 종각당, 유허비각, 둔정사가 있다. 쌍벽당은 그의 손자이다. 역사의 물줄기를 따라 살펴보면, 광산 김씨 가문이 약 1505년경에 먼저 임향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안동 권씨가 1500년대 중반에 달(달)실마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봉화라는 같은 지역에 뿌리내린 두 유력 가문은 각기 다른 배경과 선택을 보여주고 있다. 광산 김씨는 정치적 은둔과 학문 추구의 길을 걸으며 먼

저 터를 잡았고, 안동 권씨는 관직 진출과 명문 가문의 위상을 통해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두 가문의 임향 역사는 조선 시대 사족들의 다양한 생존 및 번성 방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이제 봉화지역의 쌍벽당 광산김씨, 진사댁 안동 권씨 복야공파, 그 인연의 끈을 향토사와 함께 풀어보자,

권씨 머느리 권현일의 가계 복야공파 33세

世	성명	생몰연대	연령	직위	비고
1	권형(權幸)				
2	인행(仁幸)				
3	채(冊)				
4	균한(均漢)				
5	자형(子彰)				
6	선개(先蓋)				
7	원(源)				
8	이여(利興)				
9	중시(仲時)				
10	수홍(守洪)			좌복야	복야공파조
11	자여(子興)			금자광록대부	
12	윤평(允平)			증 상서좌복야	
13	구(具)			대호군	
14	세진(世珍)			봉선대부	
15	인(寅)	공민왕 23년경?		판서공	창원?
16	후(厚)			충경장공	5세손 권호문
17	계경(啓經)			황장공, 황성원간	
18	곤(困)	1427~1502	76	호군, 부호	증 이조판서
19	사번(士彬)	1449~1535	87	의장공	증 영의정
20	발(伯)	1478~1548	71	한성판윤	문과급제, 충청공, 원상
21	동보(東輔)	1518~1592	75	한성판관	청암공
22	내(來)	1562~1617	56	군자감정	계자, 증손 권두인
23	세종(世宗)	1594~1644	51	장악원정	증손 권만 청량
24	택(宅)	1632~1701	70		
25	두광(斗光)	1653~1726	74		계조
26	해(海)	1679~1755	77	통덕랑, 장악원정	계자
27	정근(正根)	1719~1797	79		
28	사격(思格)	1743~1799	57		
29	간도(幹道)	1767~1833	67		
30	재익(載翼)	1820~1901	82		
31	중하(中夏)	1849~1919	71		
32	철연(喆連)	1874~1951	78	생원 3등, 진사	
33	모 상경(模相經)	1890~1955	66	매국지사	파리장서운동
33	권현일(權日)	1914~1950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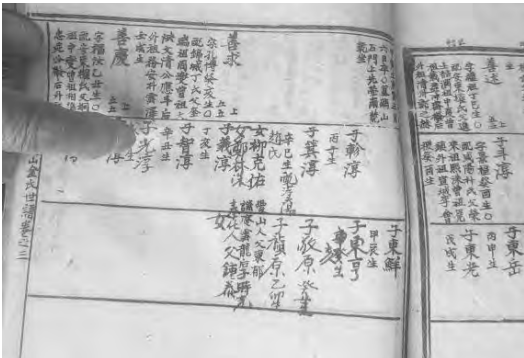
여기서 연령이 과약되는 권현일 선대 16인의 평균연령은 72세이다. 상당히 장수하는 집안임을 알 수가 있다. 이 표 'AI 족보' 작업의 일환으로 만든 것이다. 같은 성씨로 족보에 등재된 두 인물의 촌수, 관계도 등도 가능할 것이다.

권현일의 행장

1914년생으로 권진사댁에서 출생하여 외조부가 청주 鄭氏 지혁(之赫)이다. 쌍벽당 출생, 金善述(광산 김씨 21世, 字는 繼祖)과 혼인하여 3남 2녀를 낳았다.

장남 김두순(1933- ?)이 17세인 1950년 4월 6.25 발발 바로 전 4월 위장병으로 별세하였다. 당시 중앙부서 공무원인 남평(金善述)과 어린 아이들(子: 두순, 진순, 기순, 女2)을 둔 젊은 나이였다. 집안이 천가나 외가나 다 당시로서는 70대의 장수 집안이니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차남 진순은 재미과학자로 상당한 위치에서 역할을 하였다.

(글 권오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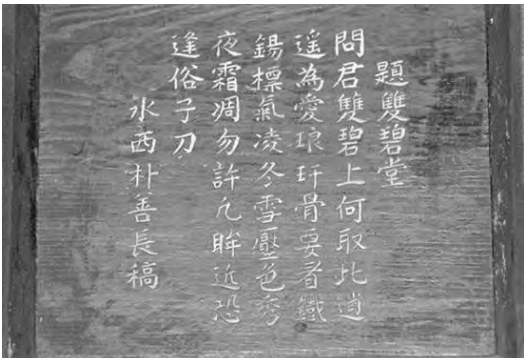


권현일과 남평 김선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나오는 족보 일부를 장남 김용이 가르고 있다. 사진 권오철

題雙碧堂 쌍벽당에 걸린 詩 권오철 拙譯

쌍벽당에서 박선장(朴善長, 1555~1616)作

問君雙碧上 그대 어찌하여 쌍벽당에 오셨는가?
何取此逍遙 무엇을 얻고자 여기를 거니시는가?
為愛琅玕骨 옥 같이 맑은 그 기골을 사랑해서?
要看鐵錫標 강철 같은 굳센 정신을 보고자 함?
氣凌冬雪壓 그 기상은 겨울 눈도 능히 이기고
色秀夜霜凋 그 마음, 밤 서리에도 시들지 않아
勿許凡眸近 속된 눈빛, 가까이 못 오게 해야니
恐逢俗子刀 아비한 칼날을 마주칠까 두려워서.
水西朴善長 稿 수서 박선장



쌍벽당에 걸린 현판의 한시가 이 집안의 전통을 말해주고 있다. 박선장은 예안군수를 한 문인인데 이 시(詩)가 쌍벽당의 존재 의미를 대변하고 있다.

영과 육의 치료의 샘터

권용만 교수(동양철학, 심리학박사)

제3장 뿌리에 대하여

3. 종교

(지나호에 이어)

그다음 기독교는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여러 말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단 조로아스터교와 대비되는 것 한 가지만 알아보자.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의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에게서 난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이 아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형인 가인은 땅의 소산(농산물)을 드렸고 동생인 아벨은 양(유목의 소산)을 드렸다. 그런데, 아뉘께서 동생의 제물은 열납(說納)하였고 형의 제물은 열납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화가 난 가인은 동생인 아벨을 쳐서 죽였다. 이후의 구약성경의 흐름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선과 악이 대립으로 전개된다. 물론 아벨은 선의 상징이고 가인은 악을 상징으로 말이다. 여기에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다는 점이다. 선과 악의 설정이 조로아스터교와는 반대이다.

주목할 점은 조로아스터교나 기독교는 신과 인간은 언제나 수직관계에 있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대립관계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높고 낮음이 있고, 대립된 구분이 있다면 갈등과 투쟁은 언제나 필연적인 것이다. 그 결과로 중요한 것은 인류의 정신문명은 깊은 수렁 속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다. 금세기의 문명을 주도했던 서양의 과학, 철학, 신학 등의 모든 학문 등은 인류를 이원론으로 인도하여 이 지구촌을 절제절명의 몰락 위기로 몰고 온 주역들이다. 이 지구상의 오늘날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원론적 이데올로기의 헤게모니(주도권)를 잡기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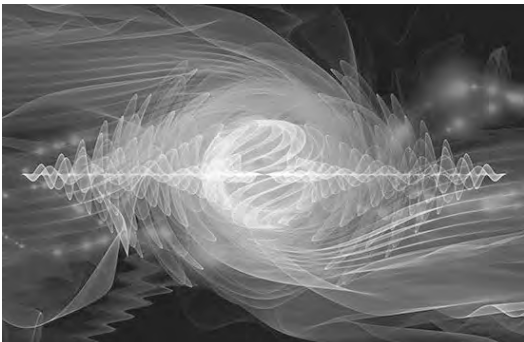
각축장, 즉 보이지 않는 전제의 아수라장이 되질 않았는가? 너와 나를, 너의 나라와 나의 나라의 이익을, 선과 악을 부르짖으면서 지구촌 어디에선가 지금도 살인, 방화, 폭탄테러, 정권의 몰락, 개인의 우상화, 공포, 가아, 질병은 그 악순환들이 되풀이 되어 일어나고 있다.

지금 필자가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기존의 학자들, 특히 종교적 기독교권이 말하는 논리에 비하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웃기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불가능 하다고 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하나의 진리로 통찰되어 그렇게 실천되리라는 생각이 아닌, 단지 그랬었고, 그러하며, 또 그렇게 간다면 결국은 인류의 파멸만이 다가오리라는 예견일 뿐이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듣고 무엇이 모순인지 깨달아서 한민족의 한얼사상을 회복하여서 인류공영에 이바지하자는 말이다. 너무나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자는 말이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 하나의 진리를 전파했고, 공자나 석가모니도 하나의 진리만을 이야기 했지만, 지금을 둘러 보라! 각 종교마다 교단을 만들어서 너와 나의 생각을 둘로만(이원론) 정의하고, 내 생각이나 논리에 다르다면 한민족의 한얼사상을 족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것은 자연현상의 하나로 자기 다른 하나가 서로 다르게 존재하는 것뿐이리라!

하나인 전체, 즉 몸과 마음이 다르질 않고, 우주를 둘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가 없고, 태양이 두 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정말 우습게도 하나님 전체를 둘로 나누어서 그 하나를 진선미(眞善美)라 하고, 다른 하나를 위선, 악함, 추함으로 생각함으로써, 그 결과 양자는 끝이 없는 대립과 갈등으로 인류의 사상을 이끌어 온 이원론, 기계론적 사고의 틀(Frame)은 20세기에 '양자역학(Quantum Mechanics)'의 등장으로 그 근본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도대체 '양자역학'이라는 낯선 물리학 이론이 생



활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반도체 없는 컴퓨터를 상상해 보자. 반도체가 없다면 노트북, 스마트폰과 같이 작은 컴퓨터의 탄생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현대 물리학의 기초인 양자역학은 컴퓨터의 주요 부품인 반도체의 원리를 설명하는 등 현대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많은 기술들의 이론적 바탕이 됐다. 또한 양자역학은 과학기술의 측면뿐 아니라 철학, 문학, 예술 등 다방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20세기 과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으로 꼽힌다.

덴마크의 물리학자 닐스 헨리크 보어(Niels Henrik David Bohr. 1922sus 원자구조론으로 노벨물리학상 수상, 1885 - 1962)보어의 '상보성(Complementality)'이론은 '빛은 하나의 입자이면서 파동이 그 실제'임을 밝혔다. 이제 이 상보성이론은 1905년의 아인슈타인의 '빛 양결이 이론(Light Quantum Theory)'을 뒷받침하는 아주 위대한 발견이었다. 아인슈타인은 빛을 파동이 있는 '알갱이'로 설명했다. 그렇다 세상의 모든 존재물들을 가장 작은 알갱이 즉, 양자(量子)로 이루졌는데, 둘이 서로 다른 각각이 아닌 서로 상응하면서 존재한다는 이론이다. 다시 말하어서, 둘은 대립이 아닌 상호보완(相互補完)하여 하나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제에는 이 상보성이론이 물리학에서 세계관의 상징이 되었고, 세계의 지식계에 만물의 특성으로 인정하는 정설(正說)로 자리매김되었다.

이 양자역학(量子力學)은 20세기 들어서 지구의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자연이치의 위대한 발견이다.

거래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영수증(현금영수증)과 계약서 등에 대한 세무상식 ④



권오형 경영학박사·공인회계사·세무사·추밀공파 35世·삼덕회계법인대표

V. 구두계약시의 문제점과 유의사항 및 대책

구두로 용역내용과 대금등을 합의하고 업무를 수행했지만, 서면계약서(날인된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의뢰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법적문제가 발생합니다.이런 경우 실제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와 정당성, 구제 가능성(판례 존재) 여부를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한가?
구두계약도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며, 서면 작성은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증명(입증)의 어려움입니다.

▣ 민법 제105조

계약은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는 한 구두로도 가능”하다.

2. 구두용역계약 후 대금 미지급 3심까지 가서도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

패소한 핵심 이유는 계약 내용 및 존재 자체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심까지 가서도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 입증 책임은 원고(용역제공자)에게 있습니다.

① 계약이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해야 합니다.

② 용역 내용 및 금액에 대한 명확한 증거 부재 (예: 서면, 녹취, 이메일, 문자, 결제 요청서 등)

③ 특히 계약서가 날인되지 않았다면 의뢰인은 계약 자체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나. 민사소송에서는 “완성된 목적물”만으로는 계약내용의 전부 입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예: 보고서나 시스템이 완성되었더라도 그것이 무상인지, 시범인지, 계약에 따른 유상인 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함

3. 유사 사례에서 구제받은 판례는?

가. 예, 구두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대금 청구가 인정된 판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공통 조건은 “그 외 정황 증거(간접증거)”가 탄탄했을 경우입니다.

나. 구제받은 주요 판례 요지

① 【서울중앙지법 2006가단157948 판결】

구두로 체결된 용역계약이었지만 이메일, 메신저 대화, 중간보고서 등을 통해 실제 계약내용과 작업진행을 증명하였고, 실제 결과물이 사용되었음이 인정되어 대금 청구가 일부 인용됨.

② 【대법원 2001.4.10. 선고 99다47608 판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행위(예: 중간 결과물 납품, 기성고 지불 등)”가 있었다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4. 결론 및 조언

가.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은 성립하지만, 입증이 실패하면 원고가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특히 상대방이 계약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용역 목적물의 사용을 부인하면 더욱 입증에 어려워집니다.

다. 구제받은 사례는 존재하지만, 전제 조건은 강력한 간접증거입니다.

간접증거에는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중간보고서, 견적서, 세금계산서등이 있습니다.

라. 추가 조치 또는 유사 사건 대응 방안

① 이전 사건의 증거를 다시 검토하여 재심청구 가능성 모색 (현저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등)

② 기존 목적물이 사용되었거나 수익을 창출했다는 객관적 자료 확보 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우회 가능성 검토

마. 향후에는 반드시 최소한 이메일/문자라도 문서화된 합의를 남겨야 함

①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 있음 → 단, 증명이 어려움

② 꼭 서면으로 계약서 작성 후 날인(서명)을 받아 두어야 하며

③ 내용 확인 후 교부받고 1부는 보관해야 하며,계약시 구두상담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착 수금을 일부라도 받아두어야 합니다.

④ 특히 고액 거래 또는 분쟁 가능성 높은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우리들 선조들이 이미 7,000여 년 전, 이 땅에서 '천부경(天符經)'을 통하여(一始無始一, 一終無終一 : 시작도 그 끝도 하나이다. 성경에는 내가 알파요, 오메가라 : 처음과 끝이라는 말슴으로 끝도 시작도 없는 즉, 하나이다) 이 위대한 한민족(韓民族)에게 일찍이 가르쳐 주신 “조화와 통일(Harmony & Unification)의 진리였음에 우리는 큰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정신(神)을 되찾자는 것이다.

끝으로 결국은 '몸과 맘, 너와 나, 기(氣)와 이(理)'는 하나이며 신과 인간도 하나이다'는 것이다. 작금에 지구촌 정신문화의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여 서구인들까지도 동양사상을 기웃거리지만 그들 또한 한민족(韓民族)의 한얼사상을 배워서 깨달음을 얻어야 할 것이며, 그 구원의 참 빛은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비추어질 것이다.

4. 깨어나라! 천손(天孫)이여

민족과 종족은 그 개념부터 다른 것이다. 민족은 문화적인 카테고리(Category)이고, 종족은 혈통, 즉 DNA가 같은 집단을 말한다. 필자는 독자들의 입장에서 이미 일반에게 익숙한 말로서, 우리 민족을 한민족(韓民族)이라 불렀지만, 사실은 역사 속에서 장구(長久)한 세월 동안 자신들을 지칭(指稱)하여 '천손(天孫)'이라 불렀었다.

고려 말의 문신(文臣)이며 주자학의 대가(大家)였던 목은(牧隱) 이색(李穡, 1328-1396)은 자신의 시(詩), '부벽루(浮碧樓)'에서, “천손(天孫)들은 지금 어느 곳에서 노니시는가!” 라고 한민족의 회한(悔恨)을 읊었다. 이처럼 고려 말까지도 고조선, 북부여, 고구려의 후손들을 천손(天孫)이라 불렀고, 한인(韓人), 한웅(裨濩), 단군(高祖神), 해모수(북부여), 고주몽(추조, 고구려 동명성왕), 박혁거세(신라), 김수로(가야) 등의 건국시조들은 모두 천손(天孫, 하나님의 자손)임을 표방(標榜)하여 왔다.

한민족은 천손임에 틀림없는 것은 역사가 이를 증명하기 때문이다.

고대사회를 꽃피웠던 인류문명의 4대 발상지가

있다고 배웠다. 그것은 지중해와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문명과 페르시아만 유역의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발생한 메소포타미아문명과 인더스, 갠지스강 유역의 인더스문명, 그리고 중국의 황하강 유역의 황하문명이 그것이다.

B.C. 5000~2000년 경에 발생하였으며 이는 현재 문명의 기원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이전 B.C. 8000~7000sus 경에 발생한 문명이 있었으니, 이는 한민족이 꽃피웠던 용산문화(龍山文化)와 요하문명(遼河文明)의 발견이 바로 그것이다

비파형(琵琶形) 동검(銅劍)으로 본 고조선의 강역(疆域)

우리민족 최초의 국가는 한국(桓國)이었다. 桓 宇의 음(音)이 '한'이나, '한'이냐는 차후에 설명토록 한다. 삼국유사 첫 머리에 '옛적에 한국이 있었(작? 有桓國)고 했다. 고려 초에 원동종이 쓴 '삼성기 하편'(參聖記 下篇)에 보면 한국은 시베리아의 파미르고원과 바이칼호를 중심으로 남북이 5만리, 동서가 2만리의 광활한 영토의 나라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한국의 시작은 지금부터 약 9,200년 전이다. 7대(代) 한인(통치자)를 거쳐 역년(曆年)이 3,301년이다. 12분국(分國)으로 나누어 다스렸는데, 이 분국(分國)의 이름들이 진서사(晉書四夷) 등 중국 고전에도 그 기록이 여실히 있고, 수일국(수일국), 우루국(우루국) 등은 구약성경에도 나온다. 나반과 아만은 현 인류 최초의 조상이다.

(다음호에 계속)